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

# 모두 발언

2023. 7. 5. (수) 15:00

금융투자협회(23F)

금융감독원

부원장 함용일

##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합용일 부원장입니다.

지난 4월에도 뵈었습니다만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님과 각 증권사 대표님들께  
양해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리서치보고서와 관련하여  
소중한 제언을 해주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님, 중앙대학교 여은정 교수님,  
그리고 독립리서치 박기현, 이충헌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논의 주제인  
증권사의 리서치보고서와 랩·신탁 관련 영업관행의 개선은  
우리 증권업계의 꽤 오래된 숙제입니다.

좋은 관행이라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지만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두 주제와 관련하여  
대표님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분들의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Ⅱ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 제고(세션 I)

먼저 리서치보고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지난번 CFD 관련 주가급락 8개 종목 중

4개만 리서치보고서가 있었고,

이 중 3개는 모두 매수의견 뿐이었다고 지적하는 등

국내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리서치관행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증권업계의 일치된 문제인식과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주요 증권사와 함께 운영중인

「리서치관행 개선 T/F」 논의과정을 지켜본 결과

그간의 관행에 대한 자성 없이,

시장환경만 탓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리서치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는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리서치보고서가 투자자에게 균형잡힌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 Ⅲ 올바른 고객자산 관리·운용(세션Ⅱ)

다음으로 고객자산 관리관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감원은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점검중에 있으며 그 핵심내용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의 랩·신탁 자산을 운용하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까지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 채권형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23.7.3.)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은 「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과

감독당국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객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부서 등  
어느 곳도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하였다면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대표님들께서  
자산관리시장의 불건전·불법관행을 확실히 근절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 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IV 맺음말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작년말 일부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단기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기를 잘 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증권업의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하여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점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인 사적접촉 관련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 수행할 예정인바,  
증권업계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